

원자재 가격 강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제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물가상승 및 경제회복 둔화, 채산성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개별 (중소)업체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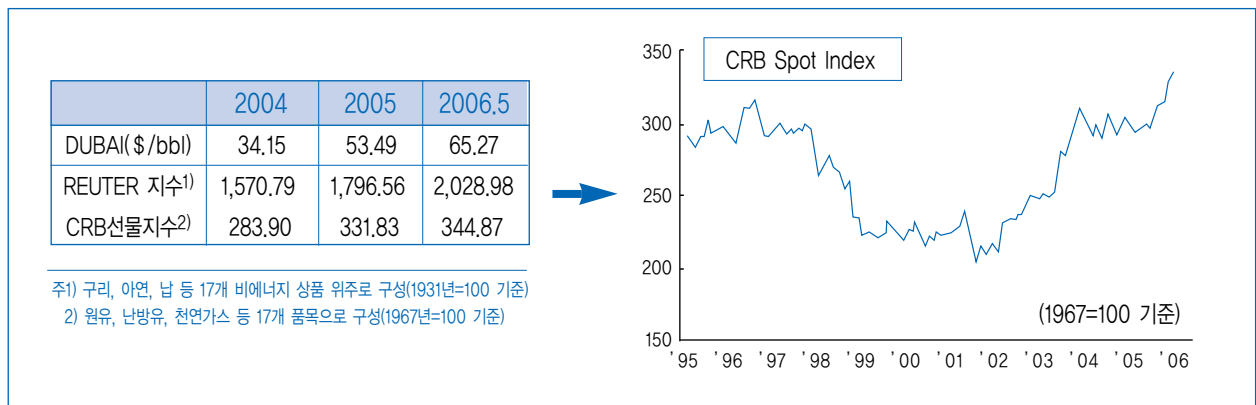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가격 강세 원인

2002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6년 들어서 재차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중 비에너지 상품 위주로 구성된 'Reuter 상품지수'는 전년 말 대비 12.9%(2006년 5월말 기준)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CRB 선물지수'도 3.9% 상승하였다.

본격 상승을 보인 2005년 이후, 원유 등 에너지와 산업재, 귀금속 가격이 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국내 수입 사용량이 많은 두바이유는 배럴당 65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비철금속 중에서 동, 아연, 니켈 등은 LME(런던금속거래소) 기준 각각 50~9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높은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원자재 수요 증가에 비해, 생산능력의 정체와 낮은 재고량 등이 수급 불균형 및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9%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원자재 수출국들도 증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의 재고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원유의 경우에는 OPEC이 원유가 유지를 위해 산유량 수준을 통제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 정치문제 등의 수급 불안 요인이 겹쳐 고가격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국제적 저금리 상황의 지속 및 달러약세도 원자재 가격의 또 다른 강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www.mofe.go.kr), 각 기간 말 기준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원자재 가격 지수가 역사적 고점 수준을 보이는 데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이의 불확실성이 커,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수급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원유 및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는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되는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자재 생산능력 확충에는 수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구조가 단기간에 역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주요국의 금리 동향 및 달러화 향방, 투기자본의 유입 지속 여부 등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세계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원유, 비철금속, 곡물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 내지 하락 예상 시점을 늦추는 전망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산업별 영향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 수입 원자재 가격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은 생산자 물가의 40%, 소비자 물가의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 또한, 상품 교역조건 하락을 통해 무역수지 및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수출 및 경제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¹⁾.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비 부담을 늘려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원유 및 원자재 가격 10% 상승시 제조업의 제조원가는 0.66%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제품과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제조원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입 원자재 조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중 원자재 조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 및 해외 수출 등 판매가격으로 전가하는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채산성 악화와 운전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과 사업장 내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생활화하고, 소재의 소형화 및 경량화, 재활용 증가를 통해 원자재 수요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 에너지 및 대체 소재 분야로의 신규 진출,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일 것이다.

심사기획실 김일광 kigwang@shinhan.com

1) Dynamic OLS 모형에 의하면 원유와 국제 원자재 가격 10% 인상이 무역수지 24.6억 달러 감소, 소비자물가 0.23% 상승, 교역조건 4.3% 악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50%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됨(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